

현대불교

왜에 오로지 전통 수제 떡갈떡을 고집하는

지리산 떡갈떡

지리산 아상차로 만듭니다

- 품질수신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우리 차문화의 계승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명신)사 오빠가 직거래

0595183-9665 / 83-3478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국민평생통장

● 비자가 로보트 코론금리로 내달리는 적립금으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영유아자금
●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07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형 / 발행인: 김립진 / 편집: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8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화합이란 남을 먼저 하고 나
를 뒤로 하여 이름과 이익을
달하지 않는 것이다.

(유형경)

법회 안내

정동선원 (02)573-850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관공법회 매월 월 오전10시30분
교법회 매월 수 오후7시
월성스님 초창법회 8월 21일
오전10시30분
그산스님 초창법회 8월 21일
오전10시30분
부산 대각사 (051)245-878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초여래법회 8월(음) 오전11시
보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부산 채인선원(051)628-7200
선외세계 강좌 매주 월 오전 10시,
오후 7시
기초교리 강좌 매주 수 오전 10시,
오후 7시
영가백일기도초도재 매주 목
오전 10시, 오후 7시
천수경 강좌 매주 금 오전 10시,
오후 7시
해동 용궁사(0523)382-774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호국 연호사 (0356)85-068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관공재일 매월 24일(음)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일요정기법회 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
(737-063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부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불합리한 조항 개정하자”

조계종, 전사법등 불교 관계법 국회 상정 추진

조계종은 불교관련 국가법령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 위해 시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대 중화대 정부가 건의했던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해 개혁회의에서 각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된 내용을 보완해 만들어 지는 이번 개정의 대상은 △전통사찰보존법(동시행령) △공원관계법(자연공원법 및 동시행령 도시공원법 및 동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동시행령) △도시계획법(동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동시행령) △토지초과이익

세법(동시행령) △지방세법(동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동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등.

이 법들은 현재 시행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사찰법정은 물론 불교재산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있는 불합리한 관련 법조항들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종단현안문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희스님)는 지난 25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10일까지 개정사안을 마련 해 채우 재경원 농림수산부 등 관

련 정부기관과 개정안을 협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기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경내지 범위 규정, 분규사찰 재산관리인 임명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공원관계법에 국·도·군립공원 지정시 조계종 총무원장 및 당해 사찰 주지와 사전 협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조계종 총무원장 당연직 이사로 참여,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계종 소속 승려 참여, 전통사찰에 대한 건축행위시 건축법 적용예외 등 중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계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면서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상에서 총회특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로 상충되는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국회에서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지난 89년 전사법 등 총 17건에 달하는 불교관계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으나 일부가 받아들여졌을 뿐 대부분이 기각됐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올 가을 국회에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될 예정이고 지난 92년 대선 공약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불교관계 법령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관계법 개정의 기대를 표시했다.

‘사찰 과세 제외’ 교계 환영

민자당 토초세 폐지·종토세 인하 작업 기대

민자당이 그동안 논란이 컸던 토지초과이익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50% 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교계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와같은 방침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조치 마련의 하나로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익세는 폐지키로 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과표의 현실화 때문에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현실화의 속도조절과 세율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부측과 이를 협의키로 했다. 또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사찰 소

유 부동산은 수익내지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 시주등 예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포교등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전통사찰의 재산채분 역시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가능하기에 부동산 투기등은 완전히 불가능 하므로 사찰의 토지는 당연히 과세대상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은 해방 후 현재까지의 불교관련 판례집을 이달말 발간한다.

이 판례집에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 재판유형별로 해설이 자세히 곁들여진다. (이경숙 기자)



“생명의 바다 어디로”

7월23일 최초의 유조선시 프린스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남해안 청정지역을 오염시켜 울고기 수백만 마리가 때죽음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오염이 제거돼 다시 청정지역으로 되돌아가기에는 20년~1백년 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금주별쇠 대판 4면·타브로이드판 4면

‘5백도적 나한으로’ 영화 카루나 몽골 촬영 20면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주 휴간합니다

교계에 연수교육 바람 15면

성보전시관 건립예산 긍정 검토

재경원·국회문체위 협력의사 밝혀

목어

삼종의 충격이 아직 재가 시지도 않았는데 또 청정해역 낚개가 죽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사고와 재해의 연속선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대로 가꾸어온 청정해역이 다시는 원상복구가 안될 것 같은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생태적인 공동어장이 기름투성이가 돼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우물도 기름섞인 바다물로 오염돼 참소한후 겨우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경각심이나 예방 태풍 캐피로 인해 좌초된

허술하게 이은 지붕

‘시 프린스’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면서 생업의 현장인 황금어장을 잃은 어민들의 절망과 한숨은 보기도 듣기도 민망할 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서 천재(天災)에 인재(人災)

가 걸린 합작품이라니 또 한 번 이런 실책할 수 밖에 없다.

감각하고 방심해 20년~100년 이 걸려야 원상회복이 가능한 무서운 사고를 불렀더니 그저 침담할 뿐이다.

청정해역이 죽음의 바다로 변하는 이 무서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이는 곧 우리 삶의 오염이며 파괴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바라보면서도 정부는 지난달 26일 환경분야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와 환경보호 책무를 포기하는 시대 역행적 처사”라는 ‘법개정 저지’의 목소리를 귀담아 풀어주길 바란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겪는 재해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되돌아 보아야겠다.

법규정에 ‘허술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새고, 잘 덮인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집안으로 옮겨놓은 대자연의 숨결

운들전용 나무마루 우드텍

거실에서 주방·운들방까지

마루난방에 적격입니다

취어짐, 뒤집힘 등 기존 목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운들 전용 나무 마루재입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강화 아보크 처리에 의해 어떠한 마루난방의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JAS(일본 공업규격)보다 약 2배의 내마모성을 가진 사이텍스 처리로 목재 특유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유지됩니다.

원하는 곳 어디나...

주요 시공실적

- 현대건설 힐튼빌 VILLA
- 현대건설 아파트 수상주택
- 나산건설 보래매 스퀘어
- 나산건설 시초 수상주택
- 동부건설 우연동 VILLA
- 신동아건설 양사동 VILLA
- 원대건설 중현동 VILLA
- 세경 DEPT(명동점)
- 동원 DEPT(명동점)

WODTEC

우드텍 시공부: 강남구 도곡 2동 454-66 (도곡신도시) 율리04 전화 579-2790-4
본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3-5(이원빌딩) 전화 572-0662 / 팩스 575-8728

주요제품: 인양문, 운들, 목재, 사이텍스 등, 건방목재, 목수제품, 목재, 스토브, 등

EST 韓生産業株式会社

우드텍 시공부: 강남구 도곡 2동 454-66 (도곡신도시) 율리04 전화 579-2790-4
본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3-5(이원빌딩) 전화 572-0662 / 팩스 575-8728

서울 대리점 구남 코퍼레이션 (02)515-9653-4 코인상사 102-664-3171

경기 대리점 이진산업 (0341)857-9151-9 비닉스 (0342)701-8055 진흥주식 (033)1282-7528 동진산업 (02)549-2218-9

대구 대리점 동양상사 (053)766-9991

광주 대리점 규광상사 (062)676-2758

대전 대리점 김동보일러 (042)932-9690